



이민족의 침략으로 본 로마와 명나라의 서로 다른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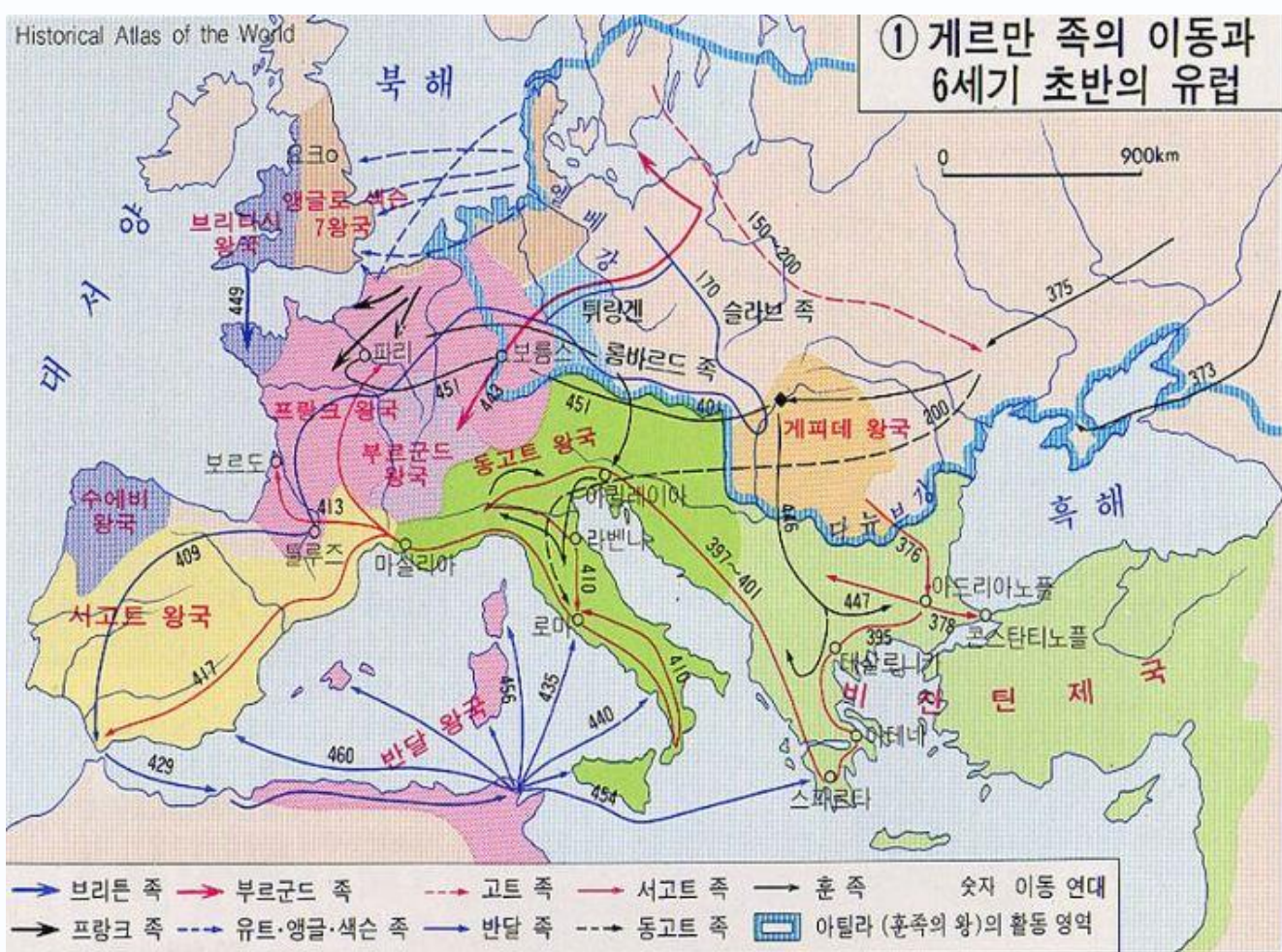
「서양지성사와 철학」과 「전환기 근대사의 조명」강의페어링

생명과학과, 오현정, 201321309, 송하석 교수님 지도

연구목적

‘서양지성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로마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배웠다. 로마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융합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창조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중 5세기에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전환기 근대사의 조명’은 근대사에 접어드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다루었다. 그 시작이 청나라의 설립이다. 17세기에는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주변 이민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렇게 로마와 명나라는 주변 이민족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민족의 침략에 관하여 로마인과 명나라 인들이 가진 태도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략에 순순히 항복을 하였고 그들과 융합이 되었지만 명나라는 청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저항을 하였다. 로마와 명나라의 국가적 성격과 멸망 전까지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두 나라의 사상적 차이인 기독교와 유교가 이민족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로마의 멸망



로마는 변경지역에 살던 게르만족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훈족의 압박 때문에 로마제국 영내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하면서 침략이 시작되었다.

명나라의 멸망



만주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명나라 내의 반란으로 혼란한 틈을 타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명나라는 멸망하였다.

로마 & 명나라의 태도 차이

	로마	명나라
국가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는 도시국가를 통합한 나라.- 로마의 각 지역마다 특색적이면서 약간의 독립성을 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모두 황제 중심의 나라.- 꾸준히 전제군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 비해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
정치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노예제 생산양식의 한계로 결국 소작농 제도- 도시: 대부분은 빈민계층이었으며 수공업생산과 상업 활동 역시 위축=> 대 영주들은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관의 부패와 가혹한 조세수탈이 농민의 궁핍을 더욱 가속화=> 반란 발생: 농민들이 균등한 토지소유, 조세경감 등 농민의 절박한 요구에 적합한 대민 정책을 쓸 수 있는 새 왕조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사상적 차이	기독교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족을 동등한 인간으로 승인하고 이민족과 싸우기 보다는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기독교적 말씀- 게르만족은 이전부터 로마에 의해 기독교를 믿어 옴.	유교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은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던 중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이론- 신체발부는 애지부모라는 유교적 통념으로 청나라의 문화인 변발을 받아들이지 못함.

연구결과

두 나라는 오랫동안 이민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정치적 상황과 사상적 차이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가졌다. 로마는 이전 시대부터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었다. 도시국가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큰 제국을 이끌어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있었음에도 존속력이 약했다. 그리고 멸망 당시 로마 주변성들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가 발생하면서 게르만족의 침입에 쉽게 굴복하였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오랫동안 로마인의 선교활동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침략 후에 융합을 위해 개종하면서 기존의 로마 시민들에게 이질감을 줄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반해 명나라는 오랜 시간 중국을 다스려온 나라들이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충성심은 높았다. 유교의 영향으로 중화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민족을 오랑캐라 칭하며 멸시하였고 청나라의 단발령은 유교적 성향이 강한 한족에게는 큰 반발심을 준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1. 신성곤, 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04. 07, pp.246~253 pp.253~263 pp.273
2. 박덕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중국 역사이야기 4」, 일송북, 2006. 02. 17, pp.396~403 pp.423~430
3. 유계 도루, 「로마는 왜 멸망하였는가」, 양홍모 옮김, (주)교문사, 1992. 03. 12, pp.147~149 pp.170~177
4. 시오노 나니미, 「로마인 이야기 15 - 로마 세계의 종언」, 김석희 옮김, 한길사, 2007. 02. 06, pp.81~95